



장애의재해석 제6권 제2호

2025 Vol. 6, No. 2, 001 - 022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통한 역전이 기반 자기 해석 훈련 모델 개발 : 프리드리히 니체를 중심으로

박성동*

본 연구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속 주인공 영혜의 침묵과 ‘나무-되기’ 서사를 정신병리로 환원하는 기존의 해석을 비판하고, 이를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을 통해 새로운 존재 방식의 가능성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영혜와 마주한 인혜의 감정 반응을 단순한 연민이나 공감만이 아닌, 자기 존재의 균열을 자각하게 하는 감응의 순간, 곧 ‘역전이’로 해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이러한 감정 반응이 억제하거나 도덕화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기 해석과 윤리적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밝히며, 이를 바탕으로 감정-존재-해석의 흐름을 구조화한 역전이 기반 자기 해석 훈련 모델, NEAR(Narrative Reception-Existential Recognition-Attunement-Reflective Interpretation) 모델을 새롭게 제안한다. 이 모델은 타자의 침묵과 해석 불가능성 앞에서 유발된 감정 반응을 존재론적 사유로 전환하고, 윤리적 감수성을 훈련하는 감응 기반 훈련 체계로 기능하는데, 이를 통해 감정은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 아니라 해석 가능한 철학적 자원으로 전환되며, 해석 불가능한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의료인이 자기 존재를 되묻고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훈련 구조를 제시하는데 최종 목표가 있다.

주제어 : 역전이, 프리드리히 니체, 자기 해석, 초인, NEAR 모델

* 경상국립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I. 서론

1. 해석 없는 억제: 한국 정신의료의 민낯

2023년 11월,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다인실 침대에 사지가 묶인 채 방치되던 환자가 같은 병실 내 타 환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불과 하루 뒤, 동일 병원에서는 또 다른 환자가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지가 묶이고 가림막에 둘러싸인 채 기저귀가 채워진 상태로 다인실에 격리되었다. 병원 측은 '격리실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병원 내 격리실 두 곳이 비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경태, 2024.7.30).

이 사건은 한국에서 정신 의료 현실이 치료보다 통제와 편의의 논리에 의해 작동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환자의 행위는 특정 신호나 관계적 요청으로 해석되기보다,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즉각적으로 억제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침묵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환자의 표현은 돌봄과 응답의 대상이 아니라 문제적 행동으로 간주되며, 그에 대한 감정적 반응 역시 은폐된다. 그 결과, 환자의 고통은 의미화되지 못한 채 배제되고, 의료인의 감정 또한 비가시화되고 억압된다.

신권철은 정신병원과 시설 내 격리·강박이 '치료의 외피를 쓴 통제의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본래 범죄에 해당하는 신체 억제 행위가 의료라는 명분 아래 제도화되며, 정신의료 공간이 돌봄의 장소가 아니라 비인격적이고 법 바깥의 예외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의료적 긴급성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강박은 환자의 고통을 해석하고 응답하려는 시도 없이, 생물학적 신체로 환원을 통해 관리·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신권철, 2023). 이때 환자는 관계의 주체가 아니라 통제의 대상이 되며, 의료는 해석이 아닌 기술적 제압과 제도적 무책임의 구조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속 영혜의 사례와 깊이 연결된다. 주인공 영혜는 육식을 거부하고, 점점 말이 없어진다. 더 나아가, 그녀는 '나무-되기'를 통해 자기 존재의 방향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녀의 '나무-되기'는 언어적으로도, 심리화적으로도 쉽게 해석되지 않으며, 영혜를 둘러싼 인물들도 이를 정신분열증으로 간주하고 통제의 대상으로 환원하는 데 열을 올린다.

하지만 이 소설은 영혜를 단순히 병리적 인물을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한강 작가는 해석 불가능한 타자와 이를 억압하려는 사회 구조 사이의 충돌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의미심장한 장면을 묘사한다. 이 장면은 바로 마지막 장 '나무 불꽃'에서 영혜의 언니인 인혜가 영혜를 바라보는 내뱉는 독백을 통해서 묘사되는데, 그녀는 자신 또한 영혜처럼 되었

을 수 있었음을 독백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이 잠정적 동일시의 순간은 타자(여기서는 영혜)의 침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나아가, 타인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감정적 동요를 계기로 자기 존재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장면을 단순한 감정적 공명이 아닌, 의료인이 임상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역전이(countertransference)’의 철학적 잠재성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니체의 철학—도덕의 해체, 고통의 예술화, 자기극복—을 이 감정 반응에 접속시킴으로써, 이해되지 않는 타자 앞에서 발생하는 무력감과 당혹감은 억제할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근원적인 자기 해석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밝혀낼 것이다. 즉, 인혜가 영혜 앞에서 느끼는 감정 반응을 삶의 전복을 유도하는 해석적 감응으로써 두고, 오히려 이를 의료인이 자기 존재를 다시금 성찰할 수 있게 하는 실천적 자기 해석 훈련의 출발점으로 재구성 시켜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NEAR(Narrative Reception-Existential Recognition-Attunement-Reflective Interpretation)라는 감정 기반 자기 해석 훈련 모델을 새롭게 제시한다. 이 모델은 『채식주의자』 속 인혜의 감정 반응과 니체 철학의 사유 구조를 분석 근거로 하여, 해석 불가능한 타자를 마주했을 때 발생하는 감정의 동요를 자기 존재를 되묻는 전환의 계기로 삼도록 유도하는 4단계 구조로 개발되었다. 본 모델은 도덕적 정답이나 규범적 공감을 가르치는 체계가 아닌, 감정 반응을 자기 성찰과 존재 해석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실천적 장치로 설계되었음을 명확히 밝힌다. 다만 이번 논문에서는 이 모델의 임상 적용이나 효과 검증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그 철학적 타당성과 문학적·간호윤리적 정합성을 논증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음을 덧붙여 밝힌다.

II. 전환의 순간: ‘영혜-되기’

1. 『채식주의자』의 서사 구조와 영혜의 타자성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총 세 개의 연작으로 구성된 소설로, 영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 전개된다. 주인공 영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여성에서 채식주의자로, 다시 형부와의 성적 관계를 통해 근친적 금기를 넘나드는 인물로, 마침내는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나무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존재로 변화하는데, 이와 같은 영혜의 변화는 단순히 이해의 어려움을 넘어, 독자에게 현실의 의미화 체계가 교란되

는 감각마저 유발시킨다. 결국 소설 속 인물들이 영혜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 낮췌 앞에서 당혹감을 느끼는 우리 독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영혜는 ‘이해 불가능한 타자’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제3부 「나무 불꽃」에서는 이 구도가 잠시 흔들린다. 이 장에서 영혜를 바라보는 인물은 그녀의 언니 인혜다. 인혜는 영혜를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으로 간주하며, 치료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영혜의 병원 입원을 주도하고 현실적 조치를 취하려 애쓰게 되는데, 점차 그 노력이 무력하게 느껴지는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 특히 병상에 누워 나무가 되기를 고집하는 영혜 앞에서, 인혜는 그 어떤 해석의 언어도 작동하지 않는 벽과 부딪힌다. 이때 그녀는 마침내 ‘자신 또한 그렇게 되었을 수 있었음’을 직감하게 된다. 그녀는 독백한다.

“시간이 훌쩍 흐른 뒤에야 그녀는 그때의 영혜를 이해했다. ... 온순하나 고지식해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던 영혜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고, 다만 그 모든 것을 뺏속까지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안다. 그때 만팔로서 실천했던 자신의 성실함은 조속함이 아니라 비접합이었다는 것을. 다만 생존의 한 방식이었을 뿐임을.”

이 장면은 인혜가 더 이상 영혜를 외부의 타자로만 응시하는 위치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존재 조건 속으로 영혜를 받아들이는 일시적 감응의 순간으로 읽힌다. 이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 영혜의 고통과 침묵이 인혜의 내면에 잠정적으로 스며드는 ‘영혜-되기’의 체험적 접속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인혜는 여전히 영혜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존재가 자기 내부의 언어로 번역될 가능성의 문턱에는 도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무 불꽃」은 『채식주의자』 전체를 통틀어, 영혜의 존재가 타자에게 감응되고 잠정적으로 번역될 가능성을 제시하는 유일한 장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물론 이 번역은 끝내 완성되지 않으며, 인혜는 다시 거리를 두고 영혜의 곁을 떠난다. 그럼에도, 감정적으로 흔들렸던 그 짧은 감응의 순간은 인혜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감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들며, 기존의 규범적 해석 체계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켰다는 점은 분명 괄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이 균열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가? 이에 본 연구는 ‘역전이(countertransference)’ 개념을 도입한다.

Ⅲ. 역전이: 감정의 전환 가능성

1. 전통적 역전이 개념과 그 한계

역전이(countertransference)는 원래 정신분석학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치료자가 환자를 대면할 때 자신도 모르게 느끼는 감정이나 무의식적 반응을 일컫는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은 분석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 억제하거나 제거해야 할 요소로 간주되었다. 역전이는 환자에 대한 왜곡된 반응이거나, 분석자의 미처 해소되지 않은 개인적 과거가 투사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정신분석의 이론과 실재는 중요한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하인즈 코헷(Heinz Kohut)과 도널드 윈니컷(Donald Winnicott) 등은 기존에 억제 대상으로 간주되던 역전이를, 치료자의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고 소유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임상적 통찰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재조명하였다. 이처럼 역전이는 단순한 오류나 방해요인이 아니라, 환자와 치료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의 핵심적 장면이자, 감정 반응을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상 현장과 교육 체계에서는 역전이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 조심스러움을 유지한다. 감정은 불안정하고 비합리적이며, 오히려 치료의 방향을 흐릴 수 있다는 전통적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 환경처럼 객관성과 통제 가능성이 강조되는 체계에서는, 치료자의 감정을 드러내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전이는 여전히 '억제해야 할 감정'과 '활용가능한 통찰'이라는 양극 사이에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 이를 단지 감정적 동일시나 연민으로 보기에는, 인혜의 반응은 훨씬 더 복합적이고 내파된 구조를 지닌다. 그렇다면 인혜가 영혜를 대면하며 느끼는 감정적 흔들림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2. 인혜는 왜 흔들렸는가: 감응에서 역전이로

『채식주의자』 제3부 「나무 불꽃」에서 인혜는 영혜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하려 애쓰는 인물이다. 하지만 병상에 누운 영혜의 모습 앞에서, 인혜는 점차 자신이 익숙하게 활용하던 해석 언어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감한다. 그 순간, 인혜는 설명 불가능한 감정적 흔들림을 겪는데, 이는 단순한 동정이나 감정 이입을 넘어선, 영혜라는 타자와 마주하면서 자신의 내면이 불가피하게 교란되는 정서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 감응은 인

혜의 독백을 통해 더 깊이 드러난다.

*“문득 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죽어 있었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었다”*

이러한 인혜의 고백은, 인혜가 영혜를 통해 자신의 삶과 정체성에 침묵 속에서 틈이 생기고 있음을 직면하는 장면이다. 영혜는 더 이상 병리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인혜 자신의 억압된 감각과 무감한 생을 환기시키는 타자가 된다는 점에서, ‘영혜가 겪는 고통이 자신도 이미 지나왔거나, 거기 닿을 수도 있었다’는 깨달음은, 타자의 존재가 곧 자기 해석의 경계까지 침투해 들어온 사건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혜가 느낀 감정은 전통적인 의미의 역전이, 즉 치료자의 무의식적 반응이라는 정의를 넘어선다. 여기서의 역전이는 특정한 임상 기술이 아니라, 타자의 존재를 통해 자기 해석이 발생하는 근원적 감응 현상으로 확장된다. 인혜는 영혜의 침묵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무언가’를 불현듯 자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실함’이라는 자기 규율이 사실은 ‘비겹함’이었음을 깨닫는다. 이는 역전이의 본질적 작동 방식—타자 앞에서 자신의 존재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그것이 곧 의미 구성의 출발점이 되는 현상—을 잘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인혜의 감정 반응은 억제하거나 객관화되어야 할 감정이 아닌, 자기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채식주의자』는 이러한 감응의 구조를 가장 섬세하게 구현한 서사로서, 해석 불가능한 타자와의 조우가 어떻게 존재론적 균열과 성찰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응의 순간은 도대체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유를 도입시킨다.

IV. 감정과 초인: 니체적 전환

1. 고통과 감정의 재창조: 프리드리히 니체의 존재 철학

니체는 고통과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제해야 할 병리적 증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고통을 단순한 결핍이나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를 재구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갱신하는 실존적 계기로 이해하였다(손유나, 2021). 특히 『도덕의 계보』에서 니체는 인간이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의 무의미함으로 인해 더욱 깊은 괴로움을 경험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야말로 인간 실존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하였다(프리드리히 니체, 201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통은 단순한 병의 징후가 아니라, 삶의 위기를 돌파하고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의 표지이며, 감정은 이 가능성을 작동시키는 정념의 힘으로 이해된다(손유나, 2021). 이런 니체에게 초인이란 고통을 제거하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고통을 자기만의 고유한 힘으로 전환하는 자이며, 이는 곧 고통과 감정을 존재론적 변형의 기점으로 삼는 능력을 지닌 자라고 볼 수 있다.

니체에게 있어 초인은 감정을 억제하거나 해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그 감정 안에서 새로운 해석의 틀을 발명하는 것, 니체는 그것이야말로 ‘예술가적 인간’의 방식이라고 보았다. 고통과 감정은 인간을 철학 하게 만들고, 무력한 순응이 아닌 생성의 힘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 이전의 삶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철학적 입장은 감정과 감응을 교육하거나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철학적 자원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허나 여전히 의구심은 남는다. ‘나무-되기’라는 불가능한 변신 욕망을 지닌 영헤와, 그런 영헤를 대면하는 인헤의 서사 속에서 어떻게 니체의 사유가 개입되는가? 본 연구는 그 해답의 실마리로서 영헤라는 인물을 ‘초인의 원형’으로, 즉, 영헤를 기존 의료체계의 객체가 아닌 실존적 주체로 재구성해 볼 것이다.

2. 초인으로서의 환자: 영헤를 통한 해석 구조의 전복

『채식주의자』의 영헤는 극단적 단식을 통해 스스로 인간의 언어와 사회 규범을 거부하고, ‘나무-되기’라는 급진적인 방식으로 본인의 존재를 표현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타자의 시선이나 도덕적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규범 질서를 파괴하며 자기 존재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인물이다. 이는 니체가 말한 초인의 원형과 깊이 연결되는데, 초인은 기존의 도덕과 질서에 복종하지 않고, 고통을 도피의 이유로 삼지 않으며,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자라는 점에서 영헤라는 인물과 맞닿아있다. 영헤는 극단적 단식으로 인한 고통을 회피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나무-되기’라는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를 형상화한다. 이런 그녀의 선택은 사회적으로 정신병적 증상으로 쉽게 환원되지만, 니체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존재 방식에 대한 미학적 실험이자 윤리적 도전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형부가 영헤의 눈빛을 묘사하는 장면이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시선이였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눈이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했다. 어린아이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이 담긴,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이 비워진 눈이였다. 아니, 어쩌면 어린아이도 되기 이전의, 아무것도 눈동자에 담아본 적 없는 것 같은 시선이였다.”

이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인혜가 영혜를 묘사할 때에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이는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제시한 ‘어린아이’의 존재론적 상징을 연상시킨다. 니체에게 있어 어린아이는 ‘무죄이며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이며 놀이이며 자발적인 수레바퀴이며 성스러운 긍정’이라는 점에서 영혜의 눈빛은 단순히 순진하거나 공허한 인상이라기보다, 도덕과 규범, 욕망과 해석 이전의 세계를 응시하는 시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로써 그녀는 기존 가치 체계의 저편에서, 새로운 존재의 기원을 암시하는 초인의 원형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영혜의 모습은 소설 곳곳에 묘사된다. 그녀가 병상에 누워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근육이 긴장돼 있고, 의식을 놓은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있다”는 서술 또한 마찬가지로, 이는 영혜가 단순한 무력감이나 퇴행의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킨다. 오히려 이는 니체가 말한 디오니소스적 몰입, 즉 고통을 창조적으로 통과하는 황홀의 상태에 가깝다. 영혜는 기존의 자아가 해체된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응시하며, 단순한 탈인간적 상태를 넘어선 존재의 극한에서 집중하고 있는 창조적 주체로 재현된다. 즉, 영혜는 기존 인간성과 결별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전이하려는 실존적 결단을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3. 노예도덕의 균열: 초인을 마주한 인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혜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인혜는 영혜의 언니로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책임감과 도덕적 역할을 수행하려 애쓰는 인물이다. 그녀는 영혜를 정신적으로 무너진 정신병자로 취급하며 병원에 입원시키고, ‘정상’의 삶으로 회복시키려 애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연민이나 선의로 보기 어려워진다. 다시 말해 인혜의 도덕적 충동은 니체가 비판하는 노예도덕의 구조와 정확히 겹치게 된다.

니체에 따르면, 노예도덕은 권력 없는 약자, 억압된 자들이 자신의 무력함을 정당화하고 생존하기 위해 발전시킨 도덕 체계인데, 이 도덕은 강자의 힘과 자기긍정 같은 가치를 ‘악’으로 간주하고, 약자에게 유리한 겸손, 인내, 복종, 동정 등의 태도를 ‘선’이라 부르며 자기

가치를 정당화한다. 즉, ‘나는 착하니까 약한 것이 아니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착하다’는 식의 가치 전복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 체계는 근본적으로 강자를 직접 응시하고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그들을 악이라 규정하며 반사적으로 자기 선함을 구축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윤리 형식이다. 마찬가지로 인혜는 영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상적이지 않다’, ‘치료받아야 한다’는 방식으로 규정하며 도덕적 개입을 시도하는데, 이는 영혜라는 초인의 형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존 제도와 도덕의 틀 안에 가두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인혜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책임 있는 사람’, ‘옳은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확인받고자 한다. 즉, 인혜는 자신의 해석 불가능성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대신, 영혜를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전락시킴으로써 자신을 ‘선한 자’로 규정지으려 한 것이다. 이는 니체가 말하는 노예 도덕의 패턴 그대로다.

그러나 문제는 인혜의 이러한 도덕성이 영혜의 존재 방식 앞에서 철저히 무력해진다는 점이다. 영혜는 해석되지 않고, 구조화되지 않으며, 도움받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스스로 ‘나무가 되겠다’고 선언하며, 침묵 속에서 기존 도덕과 의학의 언어를 넘어서는 존재 방식으로 이행한다. 이 순간, 인혜는 자신이 믿어온 도덕의 구조, 선함의 기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노예도덕이 초인 앞에서 가장 큰 공포로 드러나며, 노예도덕의 자기 해체 국면, 즉 약자의 도덕이 초인을 마주할 때 겪게 되는 내면적 붕괴의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감응의 과정에서 인혜는 자신의 연민이 얼마나 규범적 억압이었는지를 깨닫는 동시에,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신마저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균열은 인혜를 자기 해석의 문턱으로 데려간다. 그녀는 영혜를 통해 자신이 오래 전부터 ‘죽어 있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노예도덕이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인혜는 존재의 물음 앞에 서게 된다. 그녀가 영혜를 통해 감지한 고통, 침묵, 그리고 해석 불가능성은 단지 감정적 동요가 아니라, 노예도덕의 붕괴를 통해 발생하는 존재론적 감응의 징후인 것이다. 물론 인혜는 끝내 영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인혜가 나무들을 향의하듯 바라보는 장면은 이러한 한계를 암묵적으로 드러낸다. 그녀는 여전히 ‘나무-되기’를 선택한 영혜의 존재 방식을 받아들이기보다, 그 앞에서 분노와 불안을 느끼며, 이해 불가능한 타자 앞에서 흔들리는 자기 내부의 도덕 체계와 감정의 혼란을 드러낸다. 그러나 바로 그 이해 불가능성 자체가, 인혜의 내면에 존재 해석의 균열을 촉발시키고, 영혜를 암묵적으로 초인으로서 인정하게 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그와 영혜가 그렇게 경계를 뚫고 달려나가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모래산처럼 허물어뜨리지 않았다면, 무너졌을 사람은 바로 그녀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시 무너졌다면 돌아

오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그렇다면, 오늘 영혜가 토한 피는 그녀의 가슴에서 터져나왔어야 할 피일까.”

“그녀는 이미 깨달았었다. 자신이 오래전부터 죽어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고단한 삶은 연극이나 유행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인혜의 독백은, 영혜가 도달한 존재의 극한이 거울처럼 인혜 자신의 삶을 비추며, 무감각하게 유지되어온 일상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더 나아가 인혜는 다음과 같은 독백을 던지기 시작한다.

“지금 그녀가 남모르게 겪고 있는 고통과 불면을 영혜는 오래전에, 보통의 사람들보다 빠른 속력으로 통과해, 거기서 더 앞으로 나아간 걸까.”

이 물음은 인혜가 영혜를 더 이상 단순한 병리적 존재로 보지 않으며, 자신을 포함한 ‘보통의 사람들’을 넘어서는 존재, 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형식의 초월적 주체로서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즉, 『채식주의자』 속 영혜는 단순히 기존 질서의 탈락자가 아닌, 오히려 기존 질서를 전복하고 자기 존재를 새롭게 생성하는 초인의 원형으로 해석될 여지를 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영혜는 더 이상 의료적 해석의 대상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타자에게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의 동요를 유발하고, 그 감정을 통해 자기 존재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주체로 기능한다. 다시 말해, 인혜는 영혜를 직면하며 기존의 설명 가능한 언어와 도덕적 규범이 무력해지는 경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일상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성찰적 움직임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감응의 순간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전통적 위계를 전복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 즉, 환자의 감정은 더 이상 억제하거나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닌, 오히려 해석 불가능한 타자와의 조우를 통해 도래되는 존재론적 질문의 실마리로 재위치화된다. 결국 영혜에 대한 인혜의 감응은 기존 의료적 시선이 환자의 감정과 해석을 일방적으로 독점한다는 전제 자체를 붕괴시키며 감응의 윤리, 아니 더 나아가 존재의 윤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시발점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V. 역전이 기반 자기해석 훈련 모델(NEAR)

1. 감정은 훈련될 수 있는가: NEAR 모델의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채식주의자』 속 인혜의 감정 반응을 단순한 심리적 동요나 도덕적 공감으로 환원하지 않고, 자기 존재의 균열을 자각하게 하는 감응의 순간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영혜라는 인물은 병리적 존재가 아닌, 인혜로 하여금 자기 해석을 유도하는 타자, 즉 초인의 원형으로 재구성된다. 또한 인혜의 감정 반응은 억제하거나 윤리적 언어로 혼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해석과 성찰을 유도하는 철학적 자원으로 전환하였는데, 이에 따른 복합적 감정의 구조를 정신분석학의 ‘역전이’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 그것이 자기 존재를 되찾게 하는 해석적 계기로 작동할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저자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감정 반응을 자기 해석의 훈련 자원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감응 기반 훈련 체계, 즉, NEAR(Narrative Reception - Existential Recognition - Attunement - Reflective Interpretation) 모델을 도입해 볼 것이다.

2. NEAR 모델이란 무엇인가: 감정에서 해석으로, 해석에서 훈련으로

NEAR 모델은 ‘해석 불가능한 타자’를 마주했을 때 발생하는 감정의 동요를 억제하거나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존재론적 사유와 자기 성찰의 계기로 전환하고자 하는 감응 기반 자기 해석 훈련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된 이 모델은 Narrative Reception(서사의 수용), Existential Recognition(존재론적 인지), Attunement(정서적 감응), Reflective Interpretation(해석 기반 성찰)의 네 단계로 구성되며, 의료인이 타자 앞에서 경험하는 감정 반응—곧 ‘역전이’를 단순한 방해 요소가 아닌 자기 해석과 윤리적 성숙의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주의할 점은 이 모델이 기존의 도덕 교육처럼 정답 중심의 도덕 판단이나 이상화된 공감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도덕 판단 이전의 감응, 즉 타자의 침묵과 고통이 나에게 일으키는 불안, 분노, 당혹감, 무력감, 죄책감과 같은 감정 반응 자체를 해석 가능한 사유 자원으로 삼는데 주안점을 두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감정이 결코 타자에 대한 왜곡된 투사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해석의 입구이자 윤리적 구성 가능성을 여는 철학적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NEAR 모델은 이 과정을 역전이 개념에 기반한 해석 훈련 구조로 체계화하며,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NEAR 모델의 구성 및 단계별 이론적 정당화

(1) Narrative Reception(서사의 수용)

이 단계는 환자의 말, 침묵, 몸짓, 반복행위 등 모든 표현을 병리적 증상이나 정보로만 취급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삶의 맥락과 감정 구조를 해석 가능한 서사로 수용하려는 인식적 전환을 목표로 한다. 서사 의학을 기반으로, 환자는 신체적 고통의 집합이 아닌 자기 서사를 살아가는 존재이며, 의료인은 이를 경청할 수 있는 해석 구조를 갖추어야 함을 전제해야 한다. 즉, Narrative Reception은 해석의 시작이 아니라 해석이 가능한 청취 조건을 구성하는 전(前)해석 단계로서 기능한다.

이 단계에서 역전이는 아직 표면화되지 않지만, 환자의 침묵이나 파편적 언어를 ‘해석 불가능성’으로 처음 인지하면서, 의료인 내면에 미세한 불편함, 긴장, 거리감 등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이러한 감정은 이후 단계에서 명확한 역전이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며, 이는 그 감정 반응의 ‘발생 조건’을 형성하는 출발점이 된다.

(2) Existential Recognition(존재론적 인지)

‘존재론적 인지’ 단계는 환자의 고통, 침묵, 저항, 무반응 등 이해 불가능하거나 규범 밖의 표현을 해석하려 하기보다, 해석 불가능 자체를 하나의 존재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적 전환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는 환자를 일정한 질서나 의미 체계 속에 끼워 넣으려는 충동을 멈추고, 의료인이 타자의 침묵에 머무를 수 있는 감응적 공간을 마련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역전이는 이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개입되기 시작한다. 이해되지 않는 타자와 마주한 의료인은 불안, 무력감, 거부감, 초조함 등 자기 내부에서 솟구치는 정서적 동요를 경험하며, 이는 해석적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 대한 감정 반응으로 드러난다. Existential Recognition은 바로 이러한 역전이 감정을 억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도덕적 판단이나 진단 이전에 수용해야 할 감응의 조건으로 재위치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때 감정은 해석의 실패가 아니라, 존재를 받아들이는 전제 조건이 된다.

(3) Attunement(정서적 감응)

‘정서적 감응’ 단계는 의료인이 환자의 말투, 억양, 침묵의 길이, 반복적 표현 등 표현의 방식 자체에 내적으로 조율되며 감응하는 정서적 청취 능력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는 환자의 말이 전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발화되고 머뭇거리는지를 통해 감정의 떨림을 감지하고 동조하는 훈련이다.

이 단계는 역전이가 적극적으로 개입되는데, 타자의 고통이나 침묵 앞에서 의료인은 설명할 수 없는 분노, 연민, 피로, 두려움, 무력감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타자가 아니라 자기 내면 구조를 드러내는 신호로 기능한다. ‘정서적 감응’은 이러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감정을 억제하지 않되 그에 동일시하지 않고 감정 상태를 하나의 인식 대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자세를 훈련하게 된다.

즉,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라고 즉시 해석하지 않고, “지금 이런 감정이 떠오르고 있다”는 자각을 통해 감정과 자신 사이에 인지적 거리와 정서적 여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로써 감정은 무분별하게 표출되거나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준비 상태로 보류되며, 다음 단계인 성찰과 해석을 위한 자원으로 축적된다.

(4) Reflective Interpretation(해석 기반 성찰)

‘해석 기반 성찰’ 단계는 환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감정 반응, 특히 역전이를 통해 드러난 자기 해석 구조를 점검하고 재구성하는 단계이다. 이 감정은 단순한 정서 상태가 아니라, 의료인이 내면화한 도덕 기준, 판단 습관, 직업적 태도 등 자기 안의 전제 조건들이 작동한 결과로써 나타난 징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요한 점은 이 단계에서의 성찰이 단순히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꼈는가?’를 묻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인에게 그 감정이 작동한 방식과 배경을 비판적으로 의심하고, 그 전제는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어떤 사회적·제도적 구조에 기반하는지를 추적한다. 이는 감정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옳다고’, ‘정상이라고’, ‘문제라고’ 여겨왔는지를 해체적으로 되묻는 자기 해석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 앞에서 반복적으로 무력감이나 분노를 느꼈다면, 그 반응은 단순히 환자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의료인이 ‘순응적 환자’라는 전형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해석 기반 성찰’ 단계는 이처럼 감정을 통해 드러난 전제들을 언어화하고, 감정을 자기 윤리 감수성의 근거로 사유화하는 전환점이 된다. NEAR 모델은 이 최종 과정을 통해 감정에서 철학으로, 반응에서 자기 해석으로 나아가는 성찰적 구성의 훈련을 완성하게 된다.

2) 인혜의 서사를 통해 본 NEAR 모델의 단계별 작동

그렇다면 이 NEAR 모델의 네 단계가 어떻게 인혜에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논할 필요가 있다. 고로 지금부터는 인혜가 영혜라는 해석 불가능한 타자 앞에서 반복적으로 감정의 동요를 경험하고, 그 감정을 억압하거나 도덕화하지 않은 채 점차 성찰의 계기로 전환해나가

는 과정을 설명해볼 것이다.

(1) Narrative Reception(감정 동요의 서사적 시작)

인혜는 동생 영혜의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라는 질문을 듣고 처음으로 언니로서의 감정적 동요를 경험한다. 즉, 인혜에게 있어 이 질문은 단순한 자살 충동의 표현이 아닌, 인혜의 내면에 존재하는 과거의 잊혀진 서사를 불러일으키는 감응의 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인혜는 다음과 같이 독백한다.

“그 질문에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옳았을까. 그걸 대체 말이라고 하느냐고, 온힘을 다 해 화라도 냈어야 했을까.”

이 순간, 인혜는 영혜의 발화를 단순한 병적 증상이나 논리적 오류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언어로 반응하지 못했던 무력감과 당혹을 고백하며, 그 말의 의미를 되묻기 시작하는데, 이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말해진 것의 의미를 자기 내부에서 서사로 연결하려는 청취의 전환이 된다. 이어지는 인혜의 회상 장면은 바로 이러한 감정 반응이 서사의 재구성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오래전 그녀는 영혜와 함께 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그때 아홉살이었던 영혜는 말했다. 우리, 그냥 돌아가자 말자... 시간이 훌쩍 흐른 뒤에야 그녀는 그때의 영혜를 이해했다. 아버지의 손찌검은 유독 영혜를 향한 것이었다.”

이 회상은 영혜의 질문과 인혜의 과거 기억을 연결하며, 침묵과 파편적 언어를 하나의 서사로서 수용하는 전환점이 된다. 여기서 인혜는 지금까지 ‘이상한 말’로만 여겼던 영혜의 말을, 자신의 감정과 과거 기억을 매개로 해석 가능한 서사로 수용하기 시작한다. 이 지점이 바로 NEAR 모델에서 말하는 ‘Narrative Reception(서사의 수용)’의 본질이다.

(2) Existential Recognition(해석 불가능성의 수용)

NEAR의 두 번째 단계인 ‘Existential Recognition’은 타자의 침묵, 저항, 낯섦이 병리나 오류가 아닌 존재 방식의 표현임을 인지하는 전환이다. 이는 기존의 해석 구조(정상/비정상, 이성/비이성)를 해체하고, 감정 반응을 통해 타자의 존재론적 고유성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다. 인혜는 점차 영혜의 ‘나무-되기’라는 행위를 치료 불가능한 이상으로 분류하

는 것이 아니라,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 방식의 선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때 인혜가 말하는 독백은 결정적이다.

“지금 그녀가 남모르게 겪고 있는 고통과 불면을, 영혜는 오래전에, 보통의 사람들보다 빠른 속력으로 통과해, 거기서 더 앞으로 나아간 걸까.”

이 문장은 인혜가 영혜의 존재 앞에서 단순히 관찰자가 아닌, 자기 존재의 균열을 자각하는 위치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즉, 타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그녀 안에서 자기 존재를 되묻는 질문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출현하는 감정들—불안, 죄책감, 무력감, 두려움—은 단순한 동요가 아니다. 분명 이것은 타자를 보며 생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자기 내면의 구조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역전이’ 현상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인혜는 영혜 앞에서 단순히 ‘언니’나 ‘간병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혜라는 해석 불가능한 타자를 통해 자신이 억눌러왔던 죄의식, 생존자의 감정, 나약한 연민을 감각하게 되는데, 이는 단지 타자를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감정의 역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단계는 위와 같은 감정들을 회피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감정의 사유화를 위한 자원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

(3) Attunement(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감응)

Attunement(정서적 감응)은 NEAR 모델의 핵심이자 전환점에 해당하는 단계로, 자신의 감정 반응을 억제하거나 도덕화하지 않고 감지하며 머무르는 정서적 조율 상태를 뜻한다. 물론 타자와의 관계에서 감정은 항상 유발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해소되거나 즉시 판단으로 전환되기 쉬운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그 자동적 전환을 일시적으로 유예시키고, 감정 반응 자체에 머물게하여 그 파장을 감각하고 조율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인혜는 영혜를 바라보며 분노, 연민, 두려움, 경외, 죄책감 등 복합적 감정들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 감정들은 쉽게 정의되거나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혜는 그 감정들에 ‘붙들린 채’ 머무르게 된다. 다음과 같은 장면은 그 조율의 한 국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득 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에 그녀는 놀랐다. 사실이였다. 그녀는 살아본 적이 없었다. 기억할 수 있는 오래전의 어린시절부터, 다만 견뎌왔을 뿐이다.”

“그 순간 그녀는 뜻밖의 고통을 느꼈다. 살아야 할 시간이 다시 기한 없이 남아 있었는데”

데, 그것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소파에 비스듬히 걸터 앉았다. 둥글게 돌고 있는 시계 초침을 눈으로 따라가며 호흡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문득 그녀는 이 순간을 수없이 겪은 듯한 기시감을 느꼈다. 고통에 찬 확신이 마치 오래 준비된 것처럼,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의 앞에 놓여 있었다.”

“자신을 집어삼키는 구멍 같은 고통을, 격렬한 두려움을, 거기 동시에 배어든 이상한 평화를 그녀는 느꼈다.”

이 장면들은 감정의 명확한 규정이나 외재화가 일어나지 않는 채, 인혜가 자기 안에서 고통, 무기력, 기시감, 허무, 평화 같은 감정들을 조용히 진동시키는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감정 묘사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일종의 청취 감각의 형성, 곧 정서적 감응(attunement)의 구현인 셈이다. 이때 ‘역전이’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감정들은 모두 영혜라는 타자를 통해 자극되었지만, 실제로는 인혜 자신이 억압해왔던 감정 구조, 살아 있되 살아보지 못한 자로서의 자기 인식, 무의식의 고통 등이 투사된 결과이다. 이는 역전이의 전형이 되는데, 인혜는 영혜의 침묵과 파괴적 행동을 타자의 고통으로 해석하려 하지 않고, 그로 인혜 발생한 자기 안의 감정 구조를 감각하며 떠도는 상태를 수용한다. 이때 역전이는 감정의 통제가 아니라, 감정이 자기 구조를 드러내는 내적 반향으로 작동한다.

다시 말해, 이 단계에서의 역전이는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보다, ‘무엇을 드러내는가’에 민감해지는 감응적 수용태도로 전환되게끔 유도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Attunement은 NEAR의 감응 훈련에서 가장 윤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미묘한 층위로 분류된다. 인혜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아직 정의하지 않지만, 자신의 감정을 조율하며 기다리는 상태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상태가 다음 단계인 ‘Reflective Interpretation(해석 기반 성찰)’로 이어지는 전제 조건이 된다.

(4) Reflective Interpretation(감정의 해석과 자기 전환)

NEAR 모델의 마지막 단계인 ‘Reflective Interpretation’은, 감정 반응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그 감정이 말하는 바를 자기 해석의 구조 속에서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때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나 비이성적 동요가 아니라, 존재를 되묻고 윤리를 사유하게 하는 해석적 촉매로 기능한다. 인혜 또한 위와 같은 감정의 격류를

통과한 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기 인식을 고백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장면들은 그 전환의 핵심을 보여준다.

“그가 그녀를 좌절시킨 만큼 그녀 역시 그를 좌절시켰던 것은 아닐까.”

“그녀는 다시 한번 집 안의 물건들을 둘러보았다. 그것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과 꼭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선량한 인간임을 믿었으며, 그 믿음대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 성실했고, 나름대로 성공했으며,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후락한 가건물과 옷자란 풀들 앞에서 그녀는 단 한번도 살아본 적 없는 어린이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미 깨달았었다. 자신이 오래전부터 죽어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고단한 삶은 연극이나 유령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잠을 이루지 못한 지난 석달 동안 그녀는 이따금 혼란 속에서 생각해왔다. 지우가 아니라면—그애가 지워준 책임이 아니라면—자신 역시 그 끈을 놓쳐버릴지도 모른다고.”

“대신 창 너머를 애타게 바라보는 환자들에게 눈을 돌린다. 낮이 풀린 그들의 간절한 시선은 마치 창 너머로 걸어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들은 여기 갇혀 있는 것이다. 이 여자가 그렇듯이. 영혜가 그랬듯이. 그녀가 이 여자를 안지 않은 것은, 영혜를 이곳에 가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혜의 자기 성찰은 단순한 죄책감이나 도덕적 후회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자기 존재의 기반이었던 세계 해석 구조, 즉 ‘선량함’, ‘책임’, ‘성실함’과 같은 도덕적 자기 동일화가 근본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이다. 즉, 인혜는 ‘도움’과 ‘보호’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이 누구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압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회피하며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해석하기 시작하게 된 셈이다. 이때, 역전은 가장 깊숙한 층위에서 작동하게 된다. 즉, 인혜의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 반응을 넘어서, 자기 존재를 구성했던 판단과 인념을 흔드는 계기로 기능하게 되며, 영혜를 통해 자신의 감정 반응이 외부 자극이 아닌, 억압된 자기 구조의 표출임을 인식하게 된다. 예컨대, 영혜를 정신병동에 가둔 것에 대한

죄책감은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이 규범적 언니, 보호자, 직업인으로 정당화했던 역할들이 오히려 타자를 억압했던 것임을 자각하는 자기 성찰적 반성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Reflective Interpretation’ 단계는 감정에서 출발해 자기 판단 구조의 해체를 거쳐 자기 존재를 재구성하는 전환을 실현하게 된다. 이는 타자를 중심에 둔 시선에서 감정을 통한 자기 해석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해석의 주체 역시 ‘타자를 설명하는 자’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쓰는 자’로 이동하게 된다. 결국 이 단계는 윤리 판단의 정당성을 외부의 규범이나 도덕 기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감정 반응을 통해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타자를 억압하거나 해석해 왔는지를 되묻는 과정에서 찾게 되는 셈이다. 이는 니체가 말하는 창조적 인간의 개념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VI. 결론

1. NEAR 모델의 임상 적용 가능성과 윤리적 의의

NEAR 모델은 해석되지 않는 타자 앞에서 의료인이 경험하는 감정의 동요—예컨대 무력감, 당혹감, 분노, 회피 욕구—를 억제하거나 도덕화하지 않고, 그 감정 반응 자체를 성찰의 단서로 전환하는 해석 훈련 체계이다. 이는 단지 추상적인 훈련 모형이 아니라, 정신과, 호스피스, 중증 발달장애, 알코올 중독, 치매 등,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비정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임상 장면에서 의료인이 반복적으로 직면하는 윤리적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우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면들에서는 환자의 침묵, 거부, 반복된 몸짓 등을 병리로 간주하거나 치료적 실패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의료인의 감정적 소진과 관계의 단절을 심화시킨다. NEAR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인이 타자에 의해 유발된 감정 반응을 단서 삼아 자신의 존재 구조를 되묻고, 감정을 해석 가능한 윤리적 자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간호 철학과의 접속: 감응-해석-동행의 구조

분명 NEAR 모델은 의료인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범용적 훈련 체계를 지향한다. 그러나 그 철학적 구조와 실천 방식은 간호라는 영역에서 특히 높은 친화성과 타당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간호가 의학적 판단이나 개입보다, 돌봄(care)을 통한 관계 형성과 감응, 정서적 조율에 우선순위를 두는 실천 영역이기 때문이다. 즉, 간호라는 행위는 환자의 언어적 호소를 단순히 기록하는 직무에 그치지 않으며, 오히려 언어화되지 않는 고통, 반복되는 침묵, 감정적 저항과 같은 비정형적 신호 앞에서 머무르고 반응하는 감응의 실천에 가깝다. 특히 말로 표현되지 않는 환자의 고통에 감정적으로 조율되고 응답하는 능력은, 간호사에게 필수적인 역량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NEAR 모델의 네 단계—서사의 수용, 존재론적 인지, 정서적 감응, 해석 기반 성찰—은 바로 이러한 간호 실천의 리듬과 정합적으로 결합된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NEAR 모델은 새로운 윤리 체계를 제안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기존의 돌봄 윤리가 지향해온 감응성, 관계적 책임, 해석 가능한 돌봄의 철학과 긴밀하게 정합되는 감정 기반 자기 해석 훈련 체계로 기능할 뿐이다. 따라서 본 모델은 의료인을 위한 보편적 감정 훈련 모델이면서도, 특히 간호 행위를 단순한 처치가 아닌 존재적 감응 및 자기 해석의 실천이라는 점을 구체화하고 재정의할 수 있는 해석 도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다만, 아쉽게도 본 연구는 이 모델이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검토하거나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 그보다는 『채식주의자』 속 인혜의 서사를 분석 사례로 삼아, 감정-해석-성찰로 이어지는 감응적 훈련의 가능성을 철학적 차원에서 논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NEAR 모델은 문학 서사를 기반으로 한 감정 훈련 구조라는 점에서, 향후 예술·문학 치료와 접점을 가질 수 있을 듯하다. 분명 NEAR 모델 자체가 예술치료나 문학치료로 직접 활용되기는 어렵지만, 예술·문학 기반 치료 기법을 교육하거나 임상에 도입할 때, NEAR 모델은 감정 반응에 대한 해석적 민감성을 길러줌으로써 환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의료인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치료 방식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끝으로 본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 고경태. (2024. 7. 30). [단독] 정신병원 ‘다인실’ 손발 묶여 맞아죽은 다음날, 다른 환자 또 묶어.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1357.html
- 니체, 프리드리히. (2016). 도덕의 계보 (김정현, 옮김). 서울 : 책세상.
- 손유나. (2021). 니체철학에서 고통의 정신적 승화로서의 사랑, 니체연구, 42, 214-233.
- 신권철. (2023). 정신병원과 시설 내 격리·강박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서울법학, 29(2), 2-7.



Abstract

Development of a Countertransference-Based Model for Self-Interpretative Training through Han Kang's *The Vegetarian* : Focusing on Friedrich Nietzsche

Seong-Dong Park*

This study reinterprets Yeong-hye's silence and "becoming-tree" narrative in Han Kang's *The Vegetarian* not as pathology, but as a mode of existence, through the philosophy of Friedrich Nietzsche. In-hye's emotional responses are read as moments of countertransference—an affective rupture that prompts self-reflection rather than mere empathy. Based on this, the study proposes the NEAR model (Narrative Reception-Existential Recognition-Attunement-Reflective Interpretation), a countertransference-based framework for self-interpretative training. The model enables the transformation of emotional reactions into ontological insight and ethical sensitivity, particularly in clinical settings where encounters with the silent or ungraspable other demand a re-questioning of the caregiver's own being.

Keywords : Countertransference, Nietzsche, Self-interpretation, *Übermensch*, NEAR Model

*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논문 투고 : 2025.09.23.	논문 심사 : 2025.12.03.	게재 확정 : 2025.12.18.
---------------------	---------------------	---------------------